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 61차 세미나를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자유와 자비』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메일로 회신해주시면
참석 방법 안내 메일을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신주소 : khsd2701@khu.ac.kr)

“이번 발표는 제14대 달라이 라마(1935~)의 정치철학 이야기입니다. 극악무도한 잔혹함과 반인류적 범죄에 직면해서 용기와 친절을 그려낸 것이 독특합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인 힘과 폭력,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살에 현세적, 종교적 지도자라는 달라이 라마로 옹립되지만, 1950년, 중국의 8만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동부 침공 이후 좀 견디다가 미래를 기약하면서 1959년 인도로 망명합니다. 난민이라는 비극적 신분으로 60여 년째 살아가면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찾아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생깁니다. 티베트의 비극은 애당초 힘이 없어 생긴 것이라면 영적인 힘,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가 내세우는 현실주의적 중도론은 정말 현실주의인가? 한국이 세계사의 약자인 티베트 민족을 도울 길이 있을까?

한국이 처한 환경도 엄혹합니다. 강대국 속의 지정학적 위치는 1세기 전과 다름없습니다만,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핵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푸틴의 전쟁과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한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런 군사주의 앞에서 비폭력 평화주의가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핵무장을 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다가 서서히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20~21세기 세계사의 주요 흐름과 불교 수행의 맥락에서, 달라이 라마의 일생과 사상을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혼합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제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자유와 자비」

강 연 자 허우성 (경희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16:00 - 18:00

방 법 Zoom 온라인 미팅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 세미나

2022년 10월

인류문명연구회